

찬미 예수님! 저는 임순연수녀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함께 걷는 것, 함께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녀원에 오기 전에는 저에게 이런 점들이 있는지 잘 몰랐지만 수녀회에 입회하면서 수녀님들의 삶을 보며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배우면서 저의 좋은 점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4년 입회해서 2003년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본당 사도직과 본원 주방 사도직을 한 후 종신서원을 했고 2005년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망을

키우기 위해 북한대학원대학교(서울에 있는)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분들의 가정 방문, 공공시설 이용하는 법 등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점점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8년 인천에서 새터민지원센터를 열어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시간이 지금도 저에게 귀한 체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로 둘러싸인 완도 본당에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은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태어나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함께 하고, 성사 생활과 성경 공부, 성경 통독 그리고 각종 모임을 통한 만남으로 하느님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려움이 있는 가정 방문과 아픈 이들을 위한 병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고기잡이 ... 등),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지역에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방문하며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단된 우리나라이지만 꼭 통일이 될거라 믿으면서, 언젠가 북한에 있는 본당에서 사도직을 하며 평화를 이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희망은 평화전달자(Peacemaker)입니다.



Praise Jesus! I am **Sister Sun Yun Lim**. I do like to meet people, but not All the time. I am pleased to talk with other people, to walk together, to have diverse experiences and to share my time with others. After entering our Community I found out that these are my strong points, through watching our sisters' lives and learning "The way of expressing love".



I entered in 1994 and professed my perpetual profession in 2003. I made final vows after having worked in the parish mission and in dietary ministry in the

Provincial House. In 2005 I started the Study of North Korea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Seoul for promoting my desires for the mission of North Korea. I also participated in part time work supporting the refugees from North Korea. During this time, I helped them learn to use public facilities and visited their homes. My concerns about them became greater, as I started

Inchon Saetermin Support Center in 2008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devoted 6 years for this mission. Still the time when I cried and laughed with the refugees of North Korea are precious experiences in my mind

in the Providence of God.

Now, I am serving at Won-do Parish which is surrounded by the water. Most of our parishioners' work is connected with the sea. I accompany them throughout their lives from the beginning of life to death. I have shared my experience of God through the sacramental life, bible study, reading through the whole Bible, and having different meetings with them. I also visit homes where there are difficulties. Plus I visit the sick in the hospitals. Recently, the number of the migrant workers (fishing ... etc.) and multi-cultural married women have increased in our area. Therefore I am visiting them with concern and am trying to serve Jesus among them.

I believe that our country will be united, even though it is still divided into two parts. My hope is that I could be missioned as a parish sister in North Korea and I would work to be a Peacemaker.

